

위장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

위 장 약



김 종 숙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장약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은 병종의 하나가 위장병이라고 하겠으나 간단히 위장병이라고 하여도 그 종류가 많으므로 이에 쓰이는 약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약이라고 하여도 종류가 많으므로 그 중에서 몇가지만 예를 들어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약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며, 더우기 남

용하면 반드시 큰 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겠다.

위 안에 산(酸)이 없을때
제산제(制酸劑)를 쓰면

위장병의 증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소화불량(消化不良)인데 이 때는 소위 소화제라는 것을 먹는 것은 거의 상식화된 것 같다. 그러면 소화제라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어서 어떤것이 소화제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원래 소화작용은 위나 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위에서는 산이 있어야 소화작용이 되고 장에서는 알칼리성이 되어야 소화가 되는 등 복잡한 기전을 거쳐야 소화가 되므로 소화불량이라고 하여 무조건 소화제라는 개념은 좋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위 소화제는 그 대부분이 제산작용을 하는 약과 소화효소제를 합쳐서 만든 것이며 위내의 위산이 낮거나 없어서 소화가 안될 때는 제산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소화가 더욱 안 될 것은 물론이겠고 제산제를 남용하면 변비 기타의 부작용을 나타내게 된다.

그 일례로 속이 쓰리고 아프면 중조를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조를 사용하면 먹을 당시는 위산과 중화작용을 일으켜 아픔이 멎으

특 집

나 1시간이 지나면 도리혀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서 아픔이 더욱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여 복용하면 혈액내에 알카리가 많아져서 위험한 병을 발생하게 된다.

부교감 신경 차단제는 갈증 오고

또한 근년에 이르러 재산제의 부작용이 많아서 신경의 작용을 억제하여 위의 산분비를 억제시키는 약 즉, 부교감 신경차단제(副交感神經遮斷劑)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 역시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갈증이 온다던가 맥박이 빨라지거나 소변을 잘 늘 수 없다는등의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약을 남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다른 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화제라고 할지라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여 사용해야 되겠으며 약의 선택에 조심해야 되겠다.

설사에 무조건 약 쓰는 버릇

그리고 위장병의 증상의 하나로 설사가 있는데, 설사가 있으면 무조건 약을 사용하는 분이 있으나 설사는 우리 몸에 일종의 방어작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과를 보는 것이 좋겠다. 즉 우리가 좋지않은 음식물을 먹으면 몸에서 빨리 몸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사가 있는 것으로 이 때 설

사를 멈추려고 약을 먹어 설사를 안나게 하던 복부가 팽만되거나 증독증상을 일으켜 고열과 복통을 일으키게 되어 더욱 심한 다른 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 우리 주위에 많고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몇가지 약을 예로 하였으나 위장약을 남용하게 되면 위장의 기능을 도리어 감퇴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때가 있는 것이다. 위장의 기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키는데 있으므로 음식물에 주의하며 철저한 식사요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한 약물요법을 한다고 하여도 식사요법을 결합하여야 되며, 음식물이나 약물이 위장에서 흡수되면 일단 간장을 통하게 되므로 간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여 약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되겠다.

<필자=中央醫大 내과교수>

성심병원 내과과장)

◇ 세계제일

가장 큰 인쇄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쇄소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R.R. 도베리 인쇄소』. 1864년에 창설된 이 인쇄소는 180대의 인쇄기와 125대의 주요 식자기가 있고, 1년에 1만 8천 톤의 잉크를 쓰며, 45만톤의 종이를 소비한다.